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: 2023. 9. 21.(목) 11:00 이후(9. 21.(목) 석간) / 배포 : 2023. 9. 21.(목)

내년 초 개통 GTX-A, 수서~동탄 구간에서 본격 시운전 개시

- SR 수서~동탄 구간(28km)에서 이번 달부터 시운전… 주행안전성 등 4개 항목 시험
- 원희룡 장관, “시운전 시작은 적기 개통을 위한 첫걸음”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지난해 12월 출고식을 가진 **GTX-A 차량(EMU-180)**이 SR 수서~동탄 구간(28km)에서 이번 달부터 **시운전을 본격 개시**하였다고 밝혔다.

○ **원희룡 장관**은 9월 21일(목) 1시, GTX-A 차량 시운전 현장인 수서역을 찾아, **수서역에서 동탄역까지 28km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에 직접 시승**하고 시운전 **현장 관계자들을 격려**하였다.

□ **GTX-A 차량**은 그간 오송 시험선에서 5,000km 예비주행 시험('23.4)을 마치고 중부내륙선(부발~충주)으로 이동하여 예비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며,

○ 이번 달부터는 **실제 운행 구간인 SR 수서~동탄 선로**에서 **시운전에 본격 돌입**하여 주행안전성, 주행저항, 지상설비연계동작시험 등 4개 항목을 시험 중이다.

○ 특히, 철도 차량 시운전은 관련 규정*에 따라 10,000km 이상의 주행거리를 요구하나 GTX-A 차량은 안전성을 보다 철저하게 확보하기 위해 30,000km 이상을 시운전할 계획이다.

* 철도차량 형식승인·제작자승인·완성검사 시행지침

○ 참고로 이번 시운전에 이어 GTX 신설 선로 및 시설 등에 대한 **종합적인 시설 점검 및 시운전**도 이르면 **연말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**이다.

□ 원 장관은 시운전 차량에 탑승 전 안전교육을 받고 차량에 탑승하여 **수서~동탄 구간을 시승하며** 시운전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였다.

□ 원 장관은 시운전 점검에 앞서 “모두가 잠든 시간에 시운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관계자에게 감사하다”면서, “**GTX-A의 ’24년 초 개통**을 국민들께서 간절히 기다리는 만큼, **시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**하여 **적기에 개통되도록 노력**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○ 또한, 원 장관은 “아무리 적기 개통이 중요하다 하여도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에 시운전 과정에서 **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**”을 각별히 주문하였다.

○ 원 장관은 시운전 점검을 마무리하며, “오늘 이렇게 GTX-A 차량을 직접 시승해 보니 **수서에서 동탄을 20분 내에 도달**하면서도 **조용하고 쾌적하게 운행**되는 GTX 차량의 성능이 매우 인상적이다”라고 소회를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	책임자	과 장	안재혁 (044-201-3964)
		담당자	팀 장	육인수 (044-201-3963)
			서기관	이상욱 (044-201-3963)
			주무관	안남현 (044-201-397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